

공 개



의안번호	제 49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2. 10. 18. (제18차)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관련  
향후 대응방향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2. 10. 18.

## 1. 보고주문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 2. 보고이유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요구가 증대되는 시점에,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재단 내에 ISSB를 설립('21.11.3)하여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진행 중인 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한 글로벌 논의동향에 대응하고, 국내 ESG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ESG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이 필요

## 3. 주요골자

- (1) ISSB 등 ESG공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ESG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방안 검토
- (2)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업무(ISSB 국제논의 대응,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 업무 관련 전담조직인 KSSB를 신설

## 4. 참고사항

가. <별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향후 대응방향

##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 관련 향후 대응방향 보고

### 1. 추진배경

-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일 기준의 필요성 대두

\* GRI('00~), CDP의 CDSB('10~), FSB의 TCFD('17~), 美 VRF의 SASB('18~) 등

- '21.11월, IFRS재단은 국제사회(IOSCO, FSB, G20 등) 지지 하에 재단 내에 ISSB\*를 설립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추진 중

\*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22.3.31일, ISSB는 일반<sup>1)</sup> 및 기후 분야<sup>2)</sup> 공시기준 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 → '22.7월말까지 전세계 의견 수렴 실시

1) IFRS S1(일반 공시 요구사항) : 공시체계, 보고빈도·채널 등 일반적인 공시원칙

2) IFRS S2(기후 관련 공시) : 기후 분야의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공시항목

- 금융위는 회계기준원과 함께 국내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22.5월~)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한국측 최종의견서 제출('22.7월)

- '23년초 일반(S1)·기후(S2) 분야 공시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다른 분야(생물다양성·물 등 다른 E 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 (국내) 금융위는 ESG공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개략적으로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공시항목·기준 등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황

\* 「지속가능경영보고서」(거래소공시) 의무화 일정: (현행) 자율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30~) 쉐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 기업들은 현존하는 다양한 국제기준(예 : GRI, SASB, TCFD)을 자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 중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개요

■ (개요) 상장사의 ESG 관련 사항을 공시하는 보고서로, 현재 자율적으로 한국거래소에 공시 중이며,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예정

\*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건수 : ('18) 14社 → ('19) 20社 → ('20) 38社 → ('21) 79社

■ (공시내용) 「ESG정보공개 가이드라인\*」를 참고하여 ESG 관련 경영진 역할, ESG위험·기회, 물사용량, 법규위반 사고 등 ESG관련 사항을 공시

\* 한국거래소가 마련('21.1월)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으로, 보고서 작성·공개 절차, 주요 글로벌 표준(GRI, SASB, TCFD 등) 소개, 권고지표(20개) 등을 안내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과 관련한 글로벌 논의동향에 대응하고, 국내 ESG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ESG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이 필요

## 2. 향후 대응방향

### (1) 국제 논의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ESG공시제도 정비

#### □ (국제) ISSB 등 ESG공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 및 지속 모니터링

- ISSB를 모니터링하는 IFRS재단 감독이사회(MB; Monitoring Board) 회의 (한국멤버 : 금융위) 등을 통해 ISSB의 공시기준 제정현황을 모니터링
- 곧 설립 예정인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에 회원국으로 가입 추진

\* '22.7월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으로 지원서 제출(10월중<sup>참정</sup> 회원국 발표 예정)

- IFRS재단 서울총회('22.10월) 계기, ISSB 관련 행사\* 개최 지원

\* ISSB 공개세미나(10.25일), 공식 만찬 및 토론회(10.26일)

#### □ (국내) ESG공시 의무화에 대비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방안 검토

- ESG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공시항목·기준·시기·채널, 검증 체계 등 구체적인 국내 ESG공시제도 정비방안 검토

### (2)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 공시 업무 전담기구 설립

#### □ (개요) 금융위의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內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를 설립

- 그 동안은 지속가능경영센터('21.7월 설립)에서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 관련 논의를 지원해 왔으나, 향후 ISSB의 최종기준 발표, 금융위의 ESG공시제도 정비에 대응하여 관련 조직·인력 확충 필요

- ☐ (KSSB 기능) ①ISSB 논의 대응 및 국제 협력, ②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개정 지원, ③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 등

**①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논의 대응 및 국제협력**

- ISSB의 공시기준 초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한국측 의견서 제출 지원
- ISSB의 발표 문서 검토 등 논의동향 모니터링 및 국제 협력
-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지원

\* '22.7월, 백태영 교수(성균관대 경영대)가 ISSB의 초대 위원으로 선임

**②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 제·개정 지원**

**③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

-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위해 SASB 기준, ISSB기준 국문 번역 및 배포

- ☐ (KSSB 설립절차) 정관 개정, 예산 증액, KSSB 위원 선임 등 필요

### 3. 향후 계획(안)

- ☐ KSSB 설립 추진(회계기준원) 및 국내 ESG공시제도 정비방안 검토·마련 (금융위)

**① ('22.12월) 회계기준원 내 KSSB 설립을 위한 정관 및 내규 개정**

→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으로 KSSB 설립 발표

**② ('23.1월~) KSSB 운영 개시**

**③ ('23년중) 기업, 유관기관(거래소, 금감원, 회계기준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내 ESG공시제도 정비방안 검토·마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91